

첨단기술  
모두 여기에!

Where Cutting-Edge Technologies Converge!

# 「2003 한국전자전」

- 5일간 총 18만 8,592명(해외바이어 4,915명 포함)  
17억 9,175만불의 최대 수출상담 성과 기록 -

본회(회장 : 구자홍)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4대 전시회 중 하나인 34회 한국전자전이 『첨단기술, 모두 여기에!』(Where Cutting-Edge Technologies Converge!)라는 캐시프레이즈 아래, 10월 8일(수)부터 12일(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독일 등 15개 국가에서 430개사가 참가에 약 6만점을 전시, 차세대 성장동력제품 등 다양한 디지털 신제품을 선 보이는 기술경연의 한마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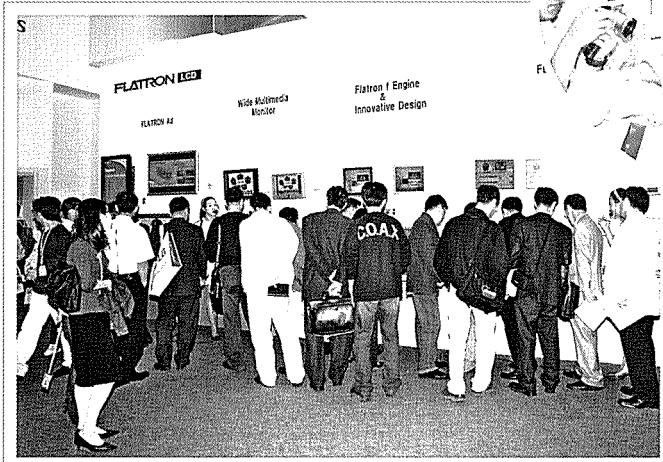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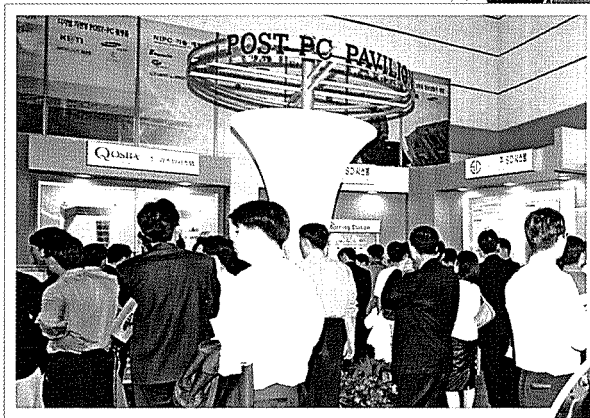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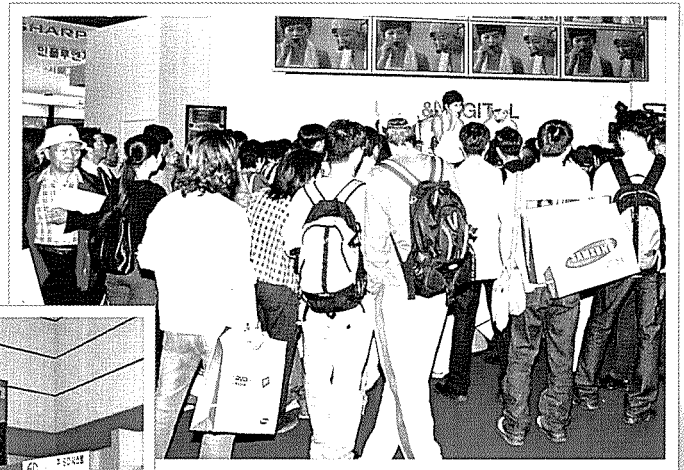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본회와 KOTRA,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며 정보통신부, 한국무역협회, 전자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7,300평 규모의 3개 홀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관, 정보통신관, 산업전자관, 전자부품관, 국가공동관 등으로 구성되어 선보였다.



첨단기술

Where Cutting-Edge Technologies Converge!

모두 여기에



이번 전자전에 선보이는 전자정보통신 제품들은 크게 다섯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군,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군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최첨단 정보통신제품군, 기술개발의 새로운 주역인 중소·벤처기업 개발 제품군, 신개발 우수 전자부품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전자전에 출품된 주요 품목동향을 살펴 보면 이들 흐름중에 대표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제품인 디지털TV가 대형업체들의 부스전면을 차지하고 화려한 색팔과 화질을 자랑하며 위용을 과시했고 대형 프로젝션 TV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초 지상파 DMB 수신기, DVD 셋탑박스, 노트북, PDA, 휴대폰 등 각종 모바일 제품에서 사용되는 핵심집인 무선인터넷용 soc,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로봇정소기 등이 관심이 집중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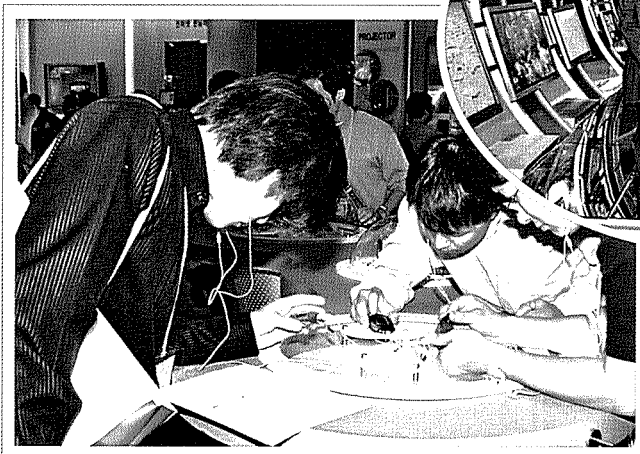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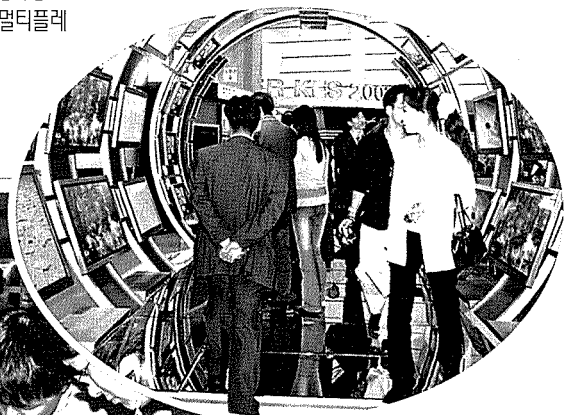


# 첨단기술 *Where Cutting-Edge Technologies Converge!*

모두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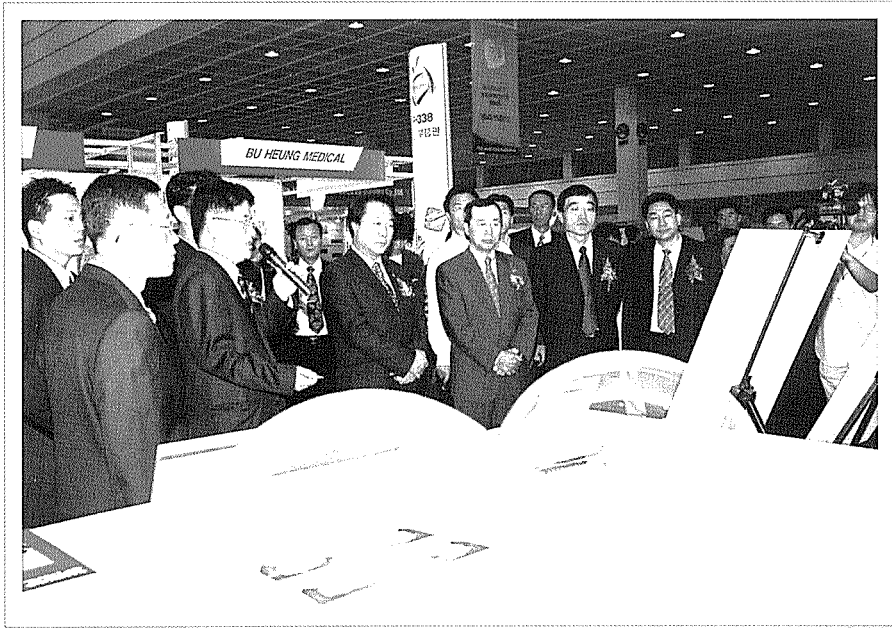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멀티미디어 제품에는 가정에서 극장과 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적용 고급형 무선 홈시어터시스템도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초 HD DVD 콤보, DVD 레코더, 413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 내장 캠코더, TV·DVD·VCR 복합화 21인치 콤보 TV, 신개념 미디어 거울TV, 멀티플래어 노트북 PC 등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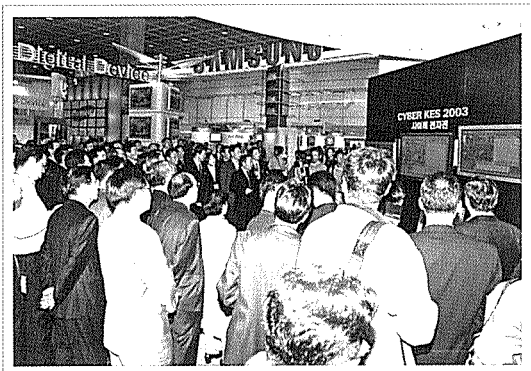
첨단 정보통신 제품에는 64화음 회전형 폴더 카메라폰, 지능형 복합단말기, 캠코더폰, 통합모바일 플랫폼 휴대폰, 모바일 banking 휴대폰 등이 선보여 동영상 소형 디스플레이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다.



또한 「신개발 우수 전자부품관」을 마련하여 지난 1년여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전자부품 가운데 「1기가바이트 DDR SDRAM」등 106종의 우수 개발품을 선정, 이를 특별 전시함으로써 국산부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 촉진도 도모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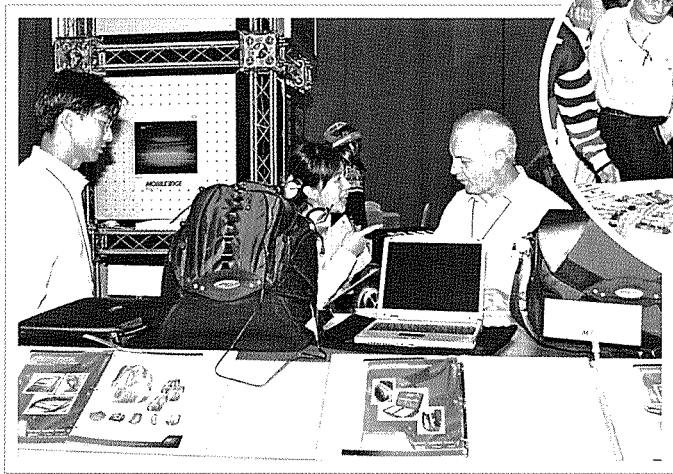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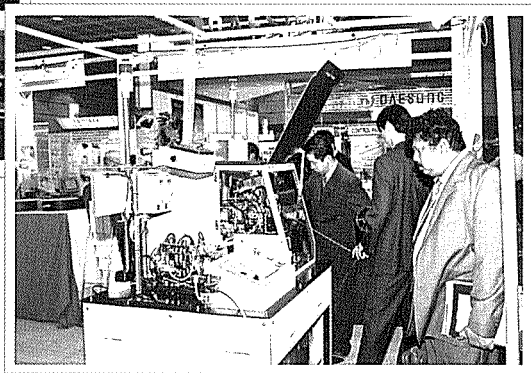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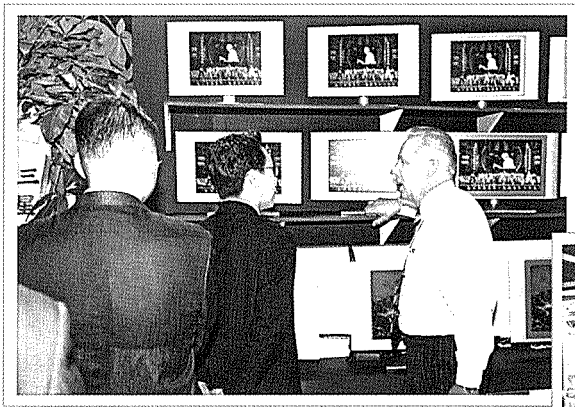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4,915명의 유력 바이어들이 내한하여 수출상담을 받았는데 국가별로 내한 바이어를 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1,378명,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이 1,187명, 미국 등 북미지역이 1,108명, 중남미 지역 592명, 중동지역에서 257명, 대양주 지역에서 215명, 아프리카 지역 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시장 바이어외에 이라크, 사우디, UAE, 요르단, 레바논 등의 중동국가들과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내한 하여 참관 및 상담을 받았다. 국가수로는 52개국으로 우리 전자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이 큰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





이들 바이어들의 관심품목을 보면 디지털TV, 셋톱박스, DVD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가정용기기와 LCD 모니터, 트랜스포머, PCB, 센서, 콘덴서, 릴레이 등의 전자부품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산업용기기로는 카오디오, 텔레메틱스 계측기기, CCTV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





주요업체별 바이어 동향을 보면 이레전자산업의 경우 PDP, LCD TV에 대해 미주 및 유럽지역 바이어들과 105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네스코로직은 디지털 셋톱박스에 대해 중동 및 유럽지역 바이어들과 130만불, 상원IT는 필름, 테이프 등 전자부품에 대해 20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첨단기술 *Where Cutting-Edge Technologies Converge!*

모두 여기에

또한 이번 한국전자전 기간 중 행사로 개최된 "신개발 전자부품 세미나"에서는 6개사의 다양한 발표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고, "제8회 전자부품 콘테스트 시상식 및 한국전자전 리셉션"도 개최하였다.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 국제 기술세미나"에서는 전자·정보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연일 3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번 한국전자전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된 속에 개최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